

# Verbo-Tonal Method를 이용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

-일본어의 장음을 중심으로-

강 연 화\*\*

(e-mail: hwa1809@dju.kr)

---

## 目 次

---

1. 서론
  2. 선행연구
  3. 실험
  4. 결과
  5. 고찰
  6. 결론
- 
- 

## 1. 서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문제점은 유성음·무성음의 변별(弁別) 오용(誤用), ザ행의 발음 오용, 악센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 음소인 축음(促音), 장음(長音), 발음(撥音)의 오용이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 음소의 지각과 생성에 대한 문제점과 오용의 경향에 대해서는 축음의 경우 戸田(2007), 関(2000, 2007), 장음의 경우 皆川(1995), 발음에 관해서는 戸田(1998) 등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러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음성 습득에 관련된 연구는 일·한

---

\* 이 논문은 2012년도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언어교육학

대조 연구, 학습자의 오용 분석에 관한 연구, 음성 지도법의 이론과 지도 방법의 소개에 한정된 연구가 많은 반면, 실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성 지도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음성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지각과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성지도법의 한 종류인 VT법(Verbo-Tonal Method)의 지도와 연습의 효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성지도법에 주목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장음의 지각(知覺)오용 경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미니멀 페어(최소대립어)에 의한 음성 지도법과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VT법의 신체리듬운동과<sup>1)</sup>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을<sup>2)</sup> 이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여 지도법의 장·단점과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VT법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음성지도법을 일본어 교육 현장에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연구

### 2.1 장음

장음의 지각 범주화와 학습자의 학습 시간에 관련된 연구로는 内田(1993)가 중국어 모어화자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각 실험을 실시한 결과, 초급 학습자의 경우 모음의 지속 시간이 충분하게 길지 않으면 장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짧지 않으면 단음의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고찰하고 있다.

상급 학습자의 경우도 확실한 장음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어 모어화자(母語話者)나 초급 학습자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장음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戸田(1998)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초급과 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각 실험

1) 신체리듬운동(Body Movement)는 언어의 생리적 발생에 근거하여 조직된 것이다. 음성 언어를 바르게 듣고 조음 할 수 있도록 음성적 특징과 신체 움직임의 요소를 관련지어 만들어진 이 운동은 음성 리듬이나 발음을 습득하기 위해 중요한 지도법이다.

小塚外(2002) 『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 p.67

2)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은 외국어 교육과 청각장애자의 발음 교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인조청각론(言調聴覚論)의 독자적인 수단으로 음악적 자극이라고 불려진다. 와라베 노래 리듬은 발화의 리듬과 인토네이션 등의 지각과 생성에 도움이 된다.

험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는 장음과 단음의 지각 범주화가 되어있지 않고, 상급 레벨이 되어도 발화 속도에 대응한 장·단음 판단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장음의 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小熊(2006)는 한국어·중국어·영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자연 발화를 이용한 생성(生成)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어 환경이 다른 모든 학습자가 장음의 위치가 어말(語末)인 경우 습득이 어렵고, 장음(長音)의 단음화(短音化) 현상과 단음(短音)의 장음화(長音化)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皆川(1995)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영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모두 어말에 위치하는 장음의 지각에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李(2011)도 한국어 모어화자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특수 박을 포함한 발음에 대해 음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치에 따른 발음의 난이도 차이는 장음에서 두드러지고 어말의 장음 발음에 곤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室井(1995)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 실험을 실시한 결과, 어두 위치에 있는 장음의 경우 지각 성적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로 어두에 위치한 장음의 악센트 고저를 이용한 장음의 유·무 판단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 2.2 VT법

언어청각론(Verbo-Tonal System)은 인간의 뇌가 음성언어를 어떻게 듣고 생성하는지, 청각의 기능과 그 원리 또 거기에 존재하는 규칙성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기술한 언어 이론으로 1950년대에 자그레브(ザグレブ)대학에서 제창하였다.<sup>3)</sup>

VTS는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하나는 청각 언어 장애자와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 및 교정에 응용하는 VT법(Verbo-Tonal Method)과 외국어 교수법에 응용하는 전체 구조 시청각 교수법(Structuro-Global Audio-Visual Methodology:SGAV)으로 분류된다.

VT법은 크로아티아의 페다르 구베리나(Guberina, P.)에 의해 연구 개발된 청각·언어 장애자 및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 지도·교정 보청기 장치 등에 응용된다.

VT법에 의한 음성 지도에는 신체 리듬 운동과 진동기 이외에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 스바그(SUVAG: Systeme Universel d'Audition Guberina)기기

3) 小畑外(2002) 『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 p.17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하였다.

에 의한 청취 지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신체 리듬 운동(Body Movement)에 관련해 小坏(2002)는 신체 리듬 운동은 언어의 생리적 발생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으로, 음성 언어를 바르게 듣고 발음 할 수 있도록 음성적 특징과 신체 움직임의 요소를 관련지어 만들어져, 음성 리듬이나 발음 습득을 위해서 중요한 지도법이라 논하고 있다.

木村(2001)는 VT법에 의한 발음 지도를 실시할 때 조음 운동에 관여하는 조음 기관과 신체의 근육의 긴장과 이완이 중요하고 그 때문에 긴장 과다, 긴장 부족 등의 부적절한 긴장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Nursery Rhyme Stimulation)은 특정의 언어로 구성되어지는 짧은 문장의 집합체로 언어의 리듬 인토네이션 악센트, 모음, 자음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습득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교재의 총칭으로 복합성(언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유희적 요소), 언어성, 음악성, 유희성, 목적성, 긴장성에 원리를 두고 있다.

VT법에 의한 지도와 연습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현저하게 적지만, 川口(1987)는 중국어 모어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 영어 모어화자인 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VT법의 신체 리듬 운동을 이용해 지도를 실시한 결과,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이 개선되었고, 특수 박의 지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姜(2011)은 VT법의 진동기와 신체 리듬 운동을 이용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오용이 많은 촉음 지도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의 촉음의 지속시간이 일본어모어화자에 근접해짐에 따라 발음이 개선된 사실을 밝혔다.

위와 같이 장음에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 레벨이나 자음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오용 경향을 분석한 것이 많은 반면, 음성 지도법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VT법은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성 지도법이기 때문에 VT법에 의한 지도와 연습의 효과에 관한 논문은 많지 않다.

姜(2012)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성지도법의 효과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VT법과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응용한 지도에 의해 오용이 감소하고 학습자의 발음이 개선되어 촉음의 지속 시간이 일본어 모어화자의 지속 시간에 근접해 짐에 따라 지도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지도법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VT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음이 어두와 어말에 위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양쪽에 존재할 경우의 오용 경향을 밝히고 VT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음성 지도법에 있어서 신체 전체(광의의 발음 기관)를 조정하는 즉, 학습자의 의식을 조정하기 어려운 조음 기관이 아닌, 조정하기 쉬운 신체를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신체 리듬 운동과 창작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을<sup>4)</sup> 이용해 특수 음소인 장음 지도를 실시하여 지도법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 3. 실험

#### 3.1 실험 개요

본 조사는 한국인 초급 학습자(Korean Low-Level Learner:이하 KLL로 표기)45명을 대상으로 2종류의 듣기 테스트(듣기 조사1, 2)를 실시했다.

우선, 장음을 포함/포함하지 않고 동시에 유의미어(有意味語)인 일본어 단어 80개를 선정하여 듣기 조사 1과2의 자료를 작성한다. 그리고 듣기 조사 1과 듣기 조사2의 순서로 KLL 45명에게 2회에 걸쳐 실험을 실시했다.

#### 3.2 조사협력자

대전 소재의 대학에서 일본어를 교양으로 수강하고 있는 초급 일본어 학습자 45명(실험군:30명, 통제군:15명)을<sup>5)</sup> 대상으로 실시했다.

초급 레벨의 기준은 일본어 능력 시험 인정 기준(일본어 능력 시험 4급 : 일본어를 150시간 정도 학습)에 근거하여 선정했다.

실험군은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군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B군으로 분류했다.

#### 3.3 음성 자료(듣기 조사1,2) 작성

악센트가 두고형(頭高型), 중고형(中高型), 평판형(平板型)으로, 어두(語頭), 어중(語中), 어말(語末), 양쪽(어두과 어말)에 장음을 포함한 단어 60개와 장음을 포함하지 않은 단어 20개,<sup>6)</sup> 총80개의 단어를 선정해 랜덤으로 배열하고, 듣

4)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에는 전승 와라베(わらべ)노래, 변형 와라베(わらべ)노래, 창작 와라베(わらべ)노래가 있다. 창작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은 전승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과 변형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것이다.

5) 조사는 초급 학습자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같은 초급 레벨의 학습자라도 개인차가 있음을 감안해 다수의 자료를 수집한 후, 각 그룹별(A군, B군, 통제군)로 15명(장음의 지각 오용수가 20점대 8명, 30점대 4명, 40점대 3명)을 선정해 균등하게 배정했다.

6)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음을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용 보다는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현저히 많아 본 조사에서는 장음의 비율을 높게 설정했다.

기 조사 원고를 작성한 후, 일본어 모어화자(동경 출신)에게 의뢰해 녹음했다.

단어 선정에 있어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초급 레벨에서 다루지 않는 단어들을 선정했고, 듣기 조사2는 듣기 조사1과 단어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였다.

### 3.4 실험 실시 방법

#### 3.4.1 듣기 조사1

듣기 조사1은 초급 학습자 45명(실험군:30명, 통제군: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VT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그룹 15명(이하 A군으로 표기), 미니멀 페어를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그룹 15명(이하 B군으로 표기),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군 15명(이하 C군으로 표기)을 대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일본어 음성 자료를 들려주고 쓰게 했다.

#### 3.4.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의 경우, A군은 VT법(신체 리듬 운동, 창작 와라베 노래 리듬)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 후, B군은 미니멀 페어(최소대립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 통제군은 지도와 연습 없이 실시했다.

듣기 조사2는 듣기 조사 1과 동일하고 단어의 순서만 다른 음성 자료를 들려준 후, 학습자에게 쓰게 했다.

A군과 B군의 지도와 연습 시간은 총75분(1회 15분씩 5회)을 실시했다.

### 3.5 지도 내용

#### 3.5.1 A군(VT법)

지도와 연습은 『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2002)을 참고로 신체 리듬 운동과 창작 와라베 노래 리듬(創作わらべうたリズム)을 이용해 실시했다.

먼저 창작 와라베 노래 리듬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고 박자와 리듬에 주의하면서 필자가 한 번 읽은 후 학습자가 따라서 반복하는 지도와 연습을 실시했다.(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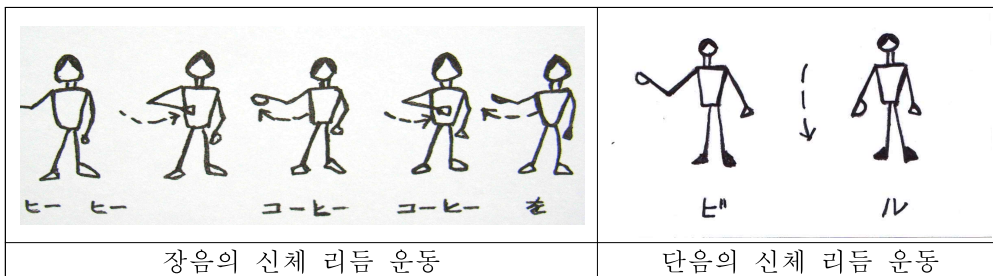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 장음의 신체 리듬 운동을 슬라이드로 보여준 후, 필자가 직접 창작 와라베 노래 리듬에 맞춰 신체 리듬 운동의 시범을 보이면서 지도와 연습을 실시했다.(5분)

【장음의 창작 와라베 노래 리듬 예】

-とうきょう	とうきょう	とうきょうは	/	おおきい	まちだよ	とうきょうは
동경	동경	동경은		큰	시내	동경은
-ビールは	ビールは	おいしいよ	/	つめたい	ビールは	おいしいよ
맥주는	맥주는	맛있어		차가운	맥주는	맛있어
-いこうよ	いこうよ	いもうとと	/	いこうよ	かいもの	いもうとと
가자	가자	여동생과		가자	쇼핑	여동생과
-ねえねえ	ていねい	ていねいご	/	まあまあ	つかえる	ていねいご
네네	정중	정중어		그런대로	사용해요	정중어
-けいよう	けいよう	けいようし	/	まいにち	べんきょう	けいようし
형용	형용	형용사		매일	공부	형용사

【장음의 신체 리듬 운동 예】

- 장음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 동작 : 팔을 좌우로 천천히 펴는 동작<sup>7)</sup>
- 단음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 동작 : 팔을 위에서 아래로 가볍고 빠르게 내리는 동작



3.5.2 B군(미니멀 페어)

B군의 지도는 미니멀 페어(장음과 단음)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장음과 단음의 발음 차이를 설명했다.

먼저 필자가 자료1의 단어를 2번씩 읽고 듣게 한 후, 자료 1의 단어를 필자가 한 번씩 읽고 시범을 보여 지도와 연습을 반복했다(7분). 학습자에게 5분간 연습시키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자료 1의 단어를 필자가 한 번씩 읽고 학습자에게 반복시킨다(3분).

7) 木村(1998) 「わらべうたリズムを活用した長音指導教材」 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語学研究』 第88号 p.224. 인용.

【미니멀 페어 연습 단어】

- ビール	ビール	- せんしゅ	せんしゅう
빌딩	맥주	선수	지난주
- おじさん	おじいさん	- しゅと	シュート
아저씨	할아버지	수도	슛
- おばさん	おばあさん	- よやく	ようやく
아주머니	할머니	요약	예약
- よかん	ようかん	- へや	へいや
예감	양갱	방	평양
- ここ	こうこう	- どよう	どうよう
여기	고등학교	토요일	동요
- おい	おおい	- しゅじん	しゅうじん
조카	많다	주인, 남편	죄수

4. 결과

한국인 일본어 초급 학습자의 장음 지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용 경향, 발음 지도를 실시한 두 그룹과 실시하지 않은 그룹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4.1 듣기 조사1

4.1.1 장음 오용 경향

<표1> 전체 오용 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오 답		계(비율)
	장음 → 단음	단음 → 장음	
VT법 (A군)	453	19	472(39%)
미니멀 페어 (B군)	438	29	467(39%)
통제군 (C군)	424	42	466(39%)
장·단음 전체 오용	1,315	90	1405(39%)

\*단어 수: 80개(장음60개·단음20개)×15인(학습자)=1,200개

<표1>은 초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1의 전체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453개, B군 438개, C군 424개, 단음을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19개, B군 29개, C군 42개로 단음의 단어 수가 적음을 감안하더라도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 4.1.2 장음 위치별

<표2> 장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장 음 위 치				합 계
	어 두	어 중	어 말	양 쪽	
VT법 (A군)	137	119	143	54	453
미니멀 페어 (B군)	139	109	140	50	438
통제군 (C군)	115	104	143	62	424
장음 위치별 오용	391	332	426	166	1,315

\*단어 수: 60개(장음)×15인(학습자)=900개

<표2>는 초급 학습자의 장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음 위치가 어말에 있는 경우에 장음 지각 오용이 많이 나타났다.

A군의 경우 장음의 위치가 어두인 경우 137, 어중 119, 어말143, 양쪽 54로 어말에 장음이 위치하는 경우에 오용이 많았다.

B군의 경우 어두 139, 어중 109, 어말 140, 양쪽 50으로 A군과 동일하게 어말이 장음인 경우에 오용이 많았고, C군의 경우도 어두 115, 어중 104, 어말 143, 양쪽 62로 A·B군과 같이 어말에 장음이 있는 환경에서 오용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장음의 위치가 어두의 경우 391개, 어중 332개, 어말 426개, 양쪽 166개의 순으로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 초급 학습자는 장음의 위치가 어말> 어두> 어중> 양쪽 순으로 장음의 지각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실험군 KLL을 대상으로 VT법(A군)과 미니멀 페어(B군)를 이용한 반복 지도와 연습의 효과를 밝힘과 동시에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군(C군)과의 대조를 통해 지도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했다.

## 4.2.1 장음 오용 경향

&lt;표3&gt; 전체 오용 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오 답		계(비율)
	장음 → 단음	단음 → 장음	
VT법 (A군)	153	26	179(15%)
미니멀 페어 (B군)	282	22	304(25%)
통제군 (C군)	369	39	408(34%)
장·단음 전체 오용	804	87	891(24%)

<표3>은 초급 학습자의 듣기 조사2의 전체 오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153개, B군 282개, C군 369개, 단음을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A군 26개, B군 22개, C군 39개로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단음을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용보다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 4.2.2 장음 위치별

&lt;표4&gt; 장음 위치별 오용 결과

(단위:개)

지 도 법	장 음 위 치				합 계
	어 두	어 중	어 말	양 쪽	
VT법 (A군)	53	28	43	29	153
미니멀 페어 (B군)	85	76	74	47	282
통제군 (C군)	110	94	99	66	369
장음 위치별 오용	248	198	216	142	804

<표4>는 듣기 조사 2의 장음의 위치에 따른 오용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A군은 장음의 위치가 어두인 경우 53, 어중 28, 어말 43, 양쪽 29, B군의 경우는 어두 85, 어중 76, 어말 74, 양쪽 47, C군의 경우는 어두 110, 어중 94, 어말 99, 양쪽 66으로 오용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장음의 위치가 어두의 경우 248개, 어말 216개, 어중 198개, 양쪽 142개의 순으로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듣기 조사1에서는 장음의 위치가 어말에 있는 경우 오용이 많았던 반면, 듣기 조사2에서는 음성 지도법을 이용해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A·B군과 통제군인 C군 모두 장음의 위치가 어두인 경우에 오용이 많았다.

### 4.3 듣기조사1과 듣기조사2의 비교(지도 전과 지도 후)의 비교

#### 4.3.1 장음 오용

<표5> 듣기조사1과 듣기조사2의 장음 오용 결과 비교 (단위:개)

지 도 법	듣기조사1	듣기조사2	감소율
VT법 (A군)	472(39%)	179(15%)	293(24%)
미니멀 페어 (B군)	467(39%)	304(25%)	163(14%)
통제군 (C군)	466(39%)	408(34%)	58 (5%)
지도 전·후의 오용	1,405(39%)	531(24%)	514(14%)

<표5>는 A·B·C군 초급학습자의 지도 전후(前後)의 지각 오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VT법으로 지도한 A군의 경우, 듣기 조사1의 472→듣기 조사2의179(1과2의 차293, 오용 감소율 24%), 미니멀페어로 지도한 B군의 경우, 467→304(163, 14%), 통제군인 C군의 경우, 466→408(58, 5%)로 지도 후에 장음의 지각 오용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VT법으로 지도한 A군의 경우 지각 오용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4.3.2 장음 위치별 오용

<표6> 듣기조사1과 듣기조사2의 장음 위치별 오용 결과 비교 (단위:개)

지 도 법	듣기조사	장 음 위 치				합계
		어 두	어 중	어 말	양 쪽	
VT법 (A군)	1	137	119	143	54	453
	2	53	28	43	29	153
미니멀 페어 (B군)	1	139	109	140	50	438
	2	85	76	74	47	282
통제군 (C군)	1	115	104	143	62	424
	2	110	94	99	66	369

<표6>은 A·B·C군 초급학습자의 지도 전후(前後)에 나타난 장음 위치별 오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VT법으로 지도한 A군의 경우, 듣기 조사1에서는 장음 위치가 어말인 경우(143)오용이 많았지만 듣기 조사2에서는 어두인 경우(53)에 많았다. 미니멀페어로 지도한 B군의 경우도 A군과 마찬가지로 듣기 조사1에서는 장음의 위치

가 어말인 경우(140)에서 장음 위치가 어두인 경우(85)에 많이 나타났다.

통제군인 C군의 경우 듣기조사 1에서는 장음의 위치가 어말인 경우(143)에 많았지만 듣기 조사2에서는 (110)개로 어두의 경우 오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3그룹 모두 듣기조사2에서는 장음의 위치가 어두에 있는 환경에서 지각 오용이 가장 많았다.

#### 4.4 지도법의 효과

각 음성 지도법을 이용한 지도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도법 유의성 검정은 일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표7> 듣기 조사1과 2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지 도 법	듣기 조사		t값(p)
	1차 (N , Mean)	2차 (N , Mean)	
VT법 (A군)	472 (31.47)	179 (11.93)	15.732***
미니멀 페어 (B군)	467 (31.13)	304 (20.26)	5.078***
통제군 (C군)	466 (31.07)	408 (27.20)	3.589**

\* p<.05    \*\* p<.01    \*\*\* p<.001

<표7>은 한국인 일본어 초급 학습자의 지도 전후의 결과를 비교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첫 번째로, A군의 듣기 조사1의 오용 수는 472개 이었으며, 평균 31.4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에는 오용의 수가 179개, 평균 11.93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검정통계량 값인 t값은 15.732로 유의수준 0.05보다 적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에 의하여 장음 오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B군의 경우 듣기 조사 1의 오용 수는 467개 이었으며, 평균 31.13개로 나타났고, 듣기 조사 2의 오용의 수는 304개, 평균은 20.26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검정통계량 t값은 5.078로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에 의하여 장음 오용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성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통제군)의 경우 듣기 조사 1의 장음 오용 수는 466개, 평균 31.07개로 나타났으며, 듣기 조사 2의 오용 수는 408개, 평균 27.20개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정통계량 t값은 3.589로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제군도 1차보

다 2차 때 오용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제군은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 보다 오용 감소의 폭이 크지 않고, 평균 3~4개 정도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음성 지도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오용이 감소되었고,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두 지도법 모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지도 전후의 장음 오용의 감소에 근거하여 VT법이 보다 효과적임이 명백해졌다.

## 5. 고찰

### 5.1 듣기 조사1

듣기 조사 1은 초급 학습자의 장음 지각에 있어서의 오용과 장음 위치별 오용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초급 학습자의 경우 단음을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용 보다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 하는 오용이 현저하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음절(音節)언어인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모라(mora:拍)언어인 일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의 등시성(拍의等時性) 즉, 각각의 박(拍)을 같은 길이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김(2007)도 일본어의 모라(mora) 개념은 음절(音節) 개념에 익숙한 한국어인 학습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8)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국어에도 장모음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있어서 장·단음의 변별(弁別)은 어렵고 일본어 모어화자처럼 장음을 장음의 길이로 판단할 수 있는 지각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장음 위치별 오용에 있어서는 A군, B군, C군 세 그룹 모두 동일하게 장음의 위치가 어말> 어두> 어중> 양쪽 순으로 장음의 위치가 어말에 있는 경우 지각에 곤란을 느끼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모어의 배경은 다르지만, 小能(2000)가 영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장음 지각 조사에서 장음의 위치가 어말> 어두> 어중의 순

8) 김숙자(2007) 『일본어 음성교육』 제이앤씨, p.183

으로 곤란을 느낀다고 보고했는데, 한국어 모어화자의 결과와 일치한다.

장음의 위치가 어말인 경우 학습자가 지각이 어려운 이유로 악센트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음이 어두나 어중에 위치하고 악센트가 두고형(頭高型)이나 중고형(中高型)의 경우 음의 높이(pitch)가 장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말에 악센트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皆川(1997)가 한국·중국·태국·영어·스페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음 부분의 악센트 pitch pattern(ピッチ・パターン)이 LL형(低低型)인 경우 장음의 지각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5.2 듣기 조사2

듣기 조사2는 두 종류의 음성 지도법을 이용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 지도 전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지도법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실시했다.

장음 오용의 경우 듣기 조사1과 동일하게 단음보다 장음의 지각 오용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VT법으로 지도한 A군의 경우(듣기 조사1의 472개→듣기 조사2의 179개), 미니멀 페어로 지도한 B군의 경우(467개→304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 그룹인 C군의 경우(466→39)개로 전체적인 오용 수는 감소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어의 장음 지각(知覺)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듣기 조사1에 비하여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을 실시한 후 오용이 감소한 사실에서 지도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C군의 경우도 오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습 시간의 경과에 의한 학습 효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장음 위치별 오용에 관해서는 듣기 조사 1에서 세 그룹 모두 장음의 위치가 어말인 경우 오용이 많았던 반면, 듣기 조사2에서는 장음의 위치가 어두인 경우에 오용이 가장 많고, 양쪽(어두와 어말)에 장음이 위치한 경우에 오용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듣기 조사1에서 장음의 위치가 어말인 경우에 오용이 많았던 점을 의식하여 지도와 연습을 실시할 때 장음의 어말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발음 지도 시(時)에 균형을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5.3 지도법의 효과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의 결과, 두 그룹 모두 지각 오용의 수가 감소한 점과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증에 의해 음성지도와 연습의 효과는 확실하게 밝혀졌다. 또한 음성 지도와 연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군의 경우도 오용 수는 감소했지만 지도 전후의 성과가 VT법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급 단계에서의 음성 지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법의 효과는 본 조사해서 실시한 두 종류의 지도법 모두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VT법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어 초급 과정에서 발음 지도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법의 경우, 학습자가 자기평가(自己フィードバック)를 하는 것은 용이(容易)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小河原(1997)도 규칙적인 발음의 반복 연습만으로 발음 향상의 학습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의 정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의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VT법의 신체리듬운동의 장점인 학습자의 의식을 조정하기 쉬운 신체의 움직임으로 연결하여 신체 전체로 기억함으로 인해 연습 시(時)에 학습자가 자기평가(自己フィードバック)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음 교정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와라베 노래 리듬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언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유희적 요소), 언어성, 음악성, 유희성, 목적성, 긴장성 등의 특징이 발음 교정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木村(2000)도 와라베(わらべ)노래 리듬은 동형(同型)의 리듬, 언어, 음절, 음소(音素)의 반복이 많고, 유희(遊戯)의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입증했다고 본다.

## 6.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의 특수박인 장음의 지각에 있어서 오용 경향을 조사 하고 음성 지도법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2종류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VT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음성 지도법의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듣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 일본어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의 단음을 장음으로 지각하는 오용 보다 장음을 단음으로 지각하는 오용이 많았다.

둘째, 한국인 일본어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일본어의 장음 지각에 있어서 장음이 어말에 위치할 경우 지각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지도법의 효과에 관해서는 듣기 조사1의 지각 오용 수와 듣기 조사2의 지각 오용 수를 비교한 결과, VT법을 이용한 지도와 연습과 미니멀 페어를 이용한 지도와 연습 모두 오용이 감소했고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VT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음성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발음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어 음성 습득에 있어서 학습자가 곤란을 느끼는 음성 항목으로는 ①특수음소(特殊音素) ②어두(語頭)의 탁음(濁音)과 어중(語中)의 청음(清音) 발음 ③ㄱ행의 발음, ④유성음(有聲音)사이에서의 ㅎ행 자음(子音)의 약화(弱化) ⑤ㄷ행의 ㅈ발음, ⑥악센트 ⑦인토네이션 등이 있다.

이러한 음성 항목들을 실제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지도할 경우 도입 단계에서 각 음성 항목에 적합한 와라베(わらべ) 노래 리듬과 신체리듬운동을 이용한 지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VT법은 단시간(短時間)에 의한 지도와 연습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어 음성 수업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발음 지도와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자연스러운 리듬 감각을 익히게 함과 동시에 어휘 습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발음 교정에 그치지 않고 어휘나 문법 항목과 연계하여 관련 음성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발음 교정과 문법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도법이 필요하다.

일본어 음성 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성 체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음성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自覺)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어 학습자에게도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이 유사(類似)한 점과 함께 음성 체계의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 곤란한 음성 항목을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고 적합한 음성 지도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음성 지도법을 제시하고 음성 교재를 작성하여 일본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숙자(2007) 『일본어 음성 교육』 제이앤씨
- 李炯宰(2011) 「日本語の特殊拍の習得に関する横断的分析－韓国人初級学習者と韓国人中級学習者を対象に－」 『日本語教育』 Vol 55 pp.159-174
- 内田照久(1993) 「中国人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長音と促音の聴覚的認知の特徴」 『教育心理学研究』 第41巻第4号 pp.414-423
- 小熊利江(2000) 「英語母語話者による長音と短音の知覚」 『世界の日本語教育』 10号 pp.43-55
- \_\_\_\_\_ (2006) 「自然発話に見られる日本語学習者の長音と短音の習得過程」 『Sophia Linguistica』 54 pp.193-205
- 小河原義郎(1997) 「発音矯正場面における学習者の発音聞き取りの関係について」 『世界の日本語教育』 92号 pp.40-52
- 姜蓮華(2011) 「振動器と身体リズム運動による発音指導－特殊音素の促音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第51輯 pp.39-55
- \_\_\_\_\_ (2012)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促音の指導－音声指導法の比較を中心に－」 『日本文化研究』 第44輯 pp.21-41
- 川口義一(1987) 「発音指導の一方法」 『講座日本語教育』 第23分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pp.48-63
- 木村政康(1998) 「わらべうたリズムを活用した長音指導教材」 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言語研究』 第88号 pp.211-262
- \_\_\_\_\_ (2000) 「わらべうたリズムを活用した撥音の指導法」 拓殖大学留学生別科 『日本語紀要』 第10号 pp.17-28
- \_\_\_\_\_ (2001) 「音声教育法－VT法の理論を応用して－」 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言語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pp.45-64
- 小坏博子・木村正康・川口義一・安富雄平(2002) 『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グベリナ記念ヴェルボナル普及協会
- 戸田貴子(1998) 「日本語学習者による促音・長音・撥音の知覚範疇化」 『文芸言語研究言語篇』 筑波大学文芸・言語学系 pp.65-82
- \_\_\_\_\_ (2007) 「日本語教育における促音の問題」 『音声研究』 第11巻第1号 pp.35-46
- 皆川泰代(1995) 「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長音知覚諸要因－英語・韓国語話者の場合－」 『平成7年度日本音声学会全国大会予稿集』 pp.52-57
- 皆川泰代(1997) 「長音・短音の識別におけるアクセント型と音節位置の要因－韓国・タイ・中国・英・西語母語話者の場合－」 『平成9年度日本語教育学会春季大会予稿集』 pp.123-128

- 関光準(2000)「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発音に見られる促音挿入の現象」『日本文化研究』9, 韓国日本文化学会 pp.63-80
- \_\_\_\_\_ (2007)「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発話に見られる促音挿入の生起要因」『音声研究』第11巻第1号 pp.58-70
- 室井幾世子(1995)「英語母語話者の日本語の特殊拍の知覚と産出に於ける諸問題」『SOPHIA LINGUISTICA』38, pp.41-60

## 要 旨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特殊拍の知覚に現れる問題点は以前から数多く指摘されてきたが、実際に現場で活用できる指導法に関する研究は少ない。

本研究はこの問題状況を基点とし、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初級45名を対象として長音の知覚に見られる特徴と誤りの傾向を調べた。さらに、音声指導法の効果を検証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VT法(身体リズム運動、創作わらべうた)とミニマル・ペアを利用した指導法による指導と練習の効果を検討するために実験を行い、以下の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長音と短音の知覚においては短音を長音と聞き間違える誤用より長音を短音と聞き間違える誤用の方が著しく多かった。

長音に位置における誤用の傾向は、聞き取り調査 1 の結果によると、語末>語頭>語中>両方(語頭と語末)の順で、語末に長音が位置する場合に困難を感じる事が分かった。

しかし、指導と練習を行った後の聞き取り調査 2 の結果は、語頭>語末>語中>両方(語頭と語末)の順に変わった。この結果は音声指導法を利用した指導と練習の際、語末の長音に重点が置かれていたためだと思われる。外国語の発音指導に欠かせないのは、バランスのとれた指導と練習であり、どちらにも配慮した指導が望まれる。

指導法の効果に関しては、VT法(身体リズム運動、創作わらべうたリズム)とミニマル・ペアを利用した指導法による指導と練習の後の聞き取り調査結果、長音の知覚における誤用が減少したことから効果が確認できたが、t 検定の結果からVT法の方がより効果的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以上の結果から分かるように、初級段階で学習者が困難とする音声項目を正確に把握し、適合した発音指導法を取り入れて継続的に指導することが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韓国人初級学習者、長音、知覚、VT法、ミニマル・ペア、発音指導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